

호남 유일 '비구니 講院' 화순 유마사의 초파일 준비

연등보다 환한 여승들의 '엄화미소'

공양준비·연등달기·꽃꽂이·청소
적막한 참선도량 종일 '야단법석'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오후 5시 호남 유일의 비구니 수행처인 '유마사(維摩寺)'의 경내는 '야단법석'이었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여승들은 대웅전 앞 마당에 연등을 매달았고, 신도들은 청소하랴 꽃꽂이하랴 종종걸음을 했다.

"하하하, 호호호..." 무엇이 그리 즐거우니 평소 같으면 '큰일날' 소리가 살금살금 절집 담을 넘어 산 정상으로 내달렸다. 화순군 남면 유마리 모후산 기슭에 자리한 이곳은 대한 불교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로 평소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끼어들 틈 없는 적막한 강원(講院). 화승(學僧)들이 머무는 참선 도량(參禪道場)이라 들짐승들도 조심조심 비켜갈 정도로 고적한 곳인데, 이날만은 소란(?)하고 여유가 넘는다.

"공부만 하는 절집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은 즐겁죠. 수행하느라 지친 스님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구요." 법랍(法臘) 35년인 주지 일장(日藏) 스님도 평소의 못웃하고, 간간한 표정을 풀고 대중들을 바라본다. '부처님 오신 날' 준비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일장 주지와 화강(學監)인 일묵(一默) 두 큰 스님이 화순 장(場)에 들렀다. 스님들은 금취·고사리·도라지·말린 호박 등 비법법에 넣은 나물을 쟈겨왔다. 석탄일에 800여 신도와 함께 먹을 공양 거러다. 때맞춰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송광사에 들렀던 젊은 스님

들도 소쿠리 가득 상추를 담아 돌아왔다.

유수(惟修)·유덕(惟德)·유안(惟安)·유선(惟禪) 등 4명의 여승이 빗방울을 흠치며 밑모자를 벗자 바람에 색색이 흔들리던 1천여 연등(燃燈)도 엄화미소(微笑)·말없이도 마음이 통해 깨달음(覺)을 짓는다.

새벽 3시 예불을 시작으로 온 종일 종종걸음을 했지만, 누구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 스님들은 지난 3월

호남 최초로 비구니 전통 강원(승가대학)이 개설 이후,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예불·독경·참선에 정진했다고 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승가대 학도 방학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승가대 2층 다락방에 밤 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독경하고 참선하며 용맹정진(勇猛精進)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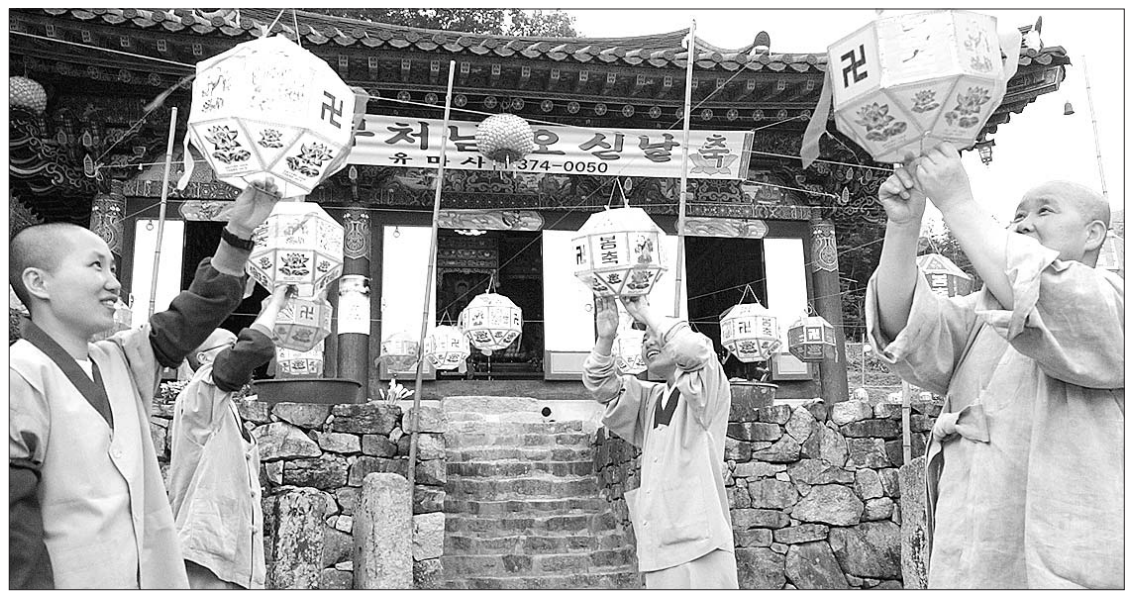
이들 유(維)자 돌림 비구니들은 속세 나이로 20대 후반. 그래도 나

이는 속일 수 없는 걸까. 꽃 향기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삶이지만, 다른 지역에 수행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밤새 큰스님들 눈을 피해 소곤댄다고 고백했다.

돌아오는 길에 물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 조용히 합장하는 스님들의 얼굴 가득 알뜰 맞듯 걸려있는 미소에 저녁 햇살이 아름답게 부서졌다. 유마사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엔 오랜만에 납자(納子)와 신도들의 발걸음으로 부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석탄일이 지나면 다시 적막에 잠겨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 유마사(維摩寺)의 비구니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오후 대웅전 앞에 연등(燃燈)을 내걸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진료비 과다청구 병원 4곳

원장 등 9명 입건

광주 남부경찰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광주시에 병·의원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은 23일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온 병·의원장 4명과 원무과장 5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청구 건수 및 진료비는 ▲K신경외과 157건 720만원 ▲Y신경외과 408건 2천2만 원 ▲M병원 450건 1천490만원 ▲H의원 360건 4천260만원 등 총 1천375건에 8천470만원이다.

진료비 허위 청구 수법은 ▲통원 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 ▲단기 입원환자 입원 일 수 늘리기

▲입·퇴원 전후 허위 진료 청구 ▲외출·외박 환자 식대 청구 ▲약품 값 부풀리기 ▲물리치료 횡수 추가 ▲방사선 촬영 및 임상병리 검사 허위 청구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병·의원은 2005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의 정기 심사 때 진료비 허위 청구에 따른 환수 조치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의원들의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를 높여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앞으로 진료비 허위 청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침 (7217) 김장두



대학강사·신협 간부 짜고 4억 부정대출

광주 동부경찰은 23일 신협 내부 규정을 어기고 불법대출을 해준 광주 신협 간부 구모(60)씨와 짜고 4억 원의 부정대출 받은 전 M대 시간강사 이모(50)·전직 은행원 서모(55)·광주시 남구 진월동(36)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씨 소유의 건물에 10여 명의 세입자가 입주해 있어 규정상 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임주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서씨 남매에게 1억8천만 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또 구씨는 정모(37)씨 명의의 동구

지산동 임야(3천25㎡)에 이미 2억5천만 원의 은행 담보가 설정돼 있어 대출 대상이 아닌데도 실제 감정평가액(2억여 원)이 아닌 공시지가(16억여 원)를 적용시켜 2억2천만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이씨와 구씨 등을 캐고 있으며, 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씨 등은 그러나 "대출 과정에 서류가 일부 부족한 점은 인정하지만 부당 대출은 아니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 Chemicals) featuring DS Construction and KCC Chemicals.

Advertisement for a horse riding school (前 국가대표 감독 선수 성추행 피소) and a horse farm (상나팔).

광주 '레인 맨' 절도범 잡았다

한 밤 50m 거리 후번호 다음날 경찰에 알려

영화 '레인 맨'(Rain Man·1988)에서 자폐증 환자 레이몬드(터스틴 호프만)는 빠르게 회전하는 룰렛(roulette)의 숫자를 기억,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탄다.

전화번호부를 통째로 외우는 레이몬드처럼,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백치천재'(Idiot savant)가 절도범을 붙잡았다.

지난 22일 새벽 2시45분께 광주 시 동구 총장로 H 소광에 부전기와 절단기를 든 전문 담배절도단이 침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만에 담배 2천690갑(시가 663만여 원)과 금반

지 등 73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목격자 황모(39·봉제공장 직원)씨를 탐문 수사 끝에 찾아내 "차량번호 '9110'으로 끝나는 봉고차보다 조금 작은 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정신지체 장애

가 있다"는 직장 동료의 말과 한밤중에 5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11시간여가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다.

경찰은 '백치천재'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외국의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에 주목, 4종

류의 SUV 차량 사진을 보여줬고, 황씨는 스타렉스를 지목했다.

'9110'으로 끝나는 2대의 스타렉스를 수배한 경찰은 4시간 만에 조모(38·광주시 서구 치평동·강도 등 전과 7범)씨 등의 차에서 장비를 발견, 범행을 자백받고 일당 중 2명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담배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매액 검거에 나섰다. 황씨에게는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지급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

10대 5명, 초등생 집까지 따라가 강도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한밤중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10대 5명을 검거, 광주 모 중학교 3년 김모(15)군 등 3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0일 밤 11시에 학원 공부를 마치고 서구 용암동 D 아파트로 돌아가던 모 초등학교 6학년 오모(12)군의 뒤를 밟아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 등은 가솔 후

역과 터미널 등에서 노숙생활을 해왔으며, 빈집이나 승용차에서 7회에 걸쳐 180여만 원을 훔쳐 오락비와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Premium New City's Central Privilege is Enjoyed by 3,813 Super Large Units!).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1 호점 : 금남지하상가 O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2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4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주 최초 일본 구제 센터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기분 좋은 변화 개성연출
Nippon Style

- 희망의 품격
부담없는 가격
편안한 쇼핑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O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매일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8시 www.epms.co.kr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PMS출신

= 2008학년도 총 1260명 모집 =

- 의학전문대학원 :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포천중문의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1회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 개설강좌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한자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6월 1일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대표입시브랜드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222-8088